

넓은 뇌와 새로운 뇌

| 수전 케인 | 김우열 옮김 |

과도한 안전을 추구하는 내향성은 문제이나 과도한 긍정적 감정도 재앙을 초래할 수 있음을 말하며, 내향적 인간의 특성을 통해 경고에 반응하는 새로운 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편집자 주).



보상 추구하는 낯은 뇌와 경고에 반응하는 새로운 뇌

보상을 추구하는 낯은 뇌와 경고에 반응하는 새로운 뇌가 내향성이냐 외향성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궁금할지도 모르겠다. 대답은 ‘상관 있다’이다. 다만 어떤 이는 다른 이들보다 좀 더 그렇다. 돈 박사는 외향적인 의뢰인들은 보상에 좀 더 민감해지기 쉬운 반면, 내향적인 의뢰인들은 경고 신호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내향적인 이들은 욕망이나 흥분을 좀 더 잘 조절한다. 불리한 상황에서 좀 더 자신을 잘 보호한다. “내향적인 투자자들은 ‘좋아요, 제니스, 지금 제가 한껏 들떠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거기에 기대서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더 강해요. 내향적인 이들은 계획을 짜고, 그대로 움직이면서 자신을 다스리는 데 훨씬 뛰어나죠.”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이 보상을 상상할 때 왜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지 이해하려면, 뇌 구조를 조금은 이해해야 한다고 돈 박사는 말한다. 4장에서 보았듯이, 가장 원시적인 포유류에도 존재하는, 돈 박사가 ‘낯은 뇌’라고 부르는 변연계는 감정과 본능에 따라간다. 그것은 편도체를 비롯한 여러 조직으로 구성되는데, 때때로 뇌의 ‘감각센터’로도 불리는 중격의지핵(nucleus accumbens)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앞서 높은 반응성과 내향성을 다룰 때 편도체의 역할을 탐구하면서 낯은 뇌의 불안한 면을 살펴보았다. 이제는 탐욕스러운 면을 살펴보자.

돈 박사에 따르면 낯은 뇌는 우리에게 쉬지 않고 말하고 있다. “그래, 그래, 그렇지! 더 먹어, 더 마셔, 섹스도 더 해, 위험한 일을 잔뜩

별여, 쾌락이란 쾌락은 모두 누리고, 무엇보다도 생각은 집어치워!” 돈 박사의 생각에 따르면 이렇게 보상을 추구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부분에 자극을 받아, 앨런은 자신이 평생 저축한 돈을 카지노의 칩처럼 써버렸다.

우리에게는 신뢰질이라고 하는 ‘새로운 뇌’도 있는데, 변연계보다 훨씬 늦게 나타난 부분이다. 새로운 뇌는 사고하기, 계획하기, 언어, 의사결정을 책임진다. 우리를 인간답게 해주는 바로 그 기능들이다. 새로운 뇌는 우리의 정서생활에도 중대한 역할을 하지만, 이성의 자리이기도 하다. 그 역할 중에는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있다. “안 돼, 안 돼, 그만둬! 그러지 마, 그건 위험하고 말도 안 되고 네게도 네 가족에게도 사회에도 이득이 되지 않아.”

그렇다면 앨런이 주식시장에서 이득을 보려고 할 당시 그의 신뢰질은 뭘 하고 있었을까?

낡은 뇌와 새로운 뇌는 실제로 협력하며 일하지만, 늘 효과적으로 협력하지는 못한다. 가끔은 서로 충돌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어느 쪽이 더 강한 신호를 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좌우된다. 따라서 앨런의 낡은 뇌가 숨 막힐 듯 흥분되는 메시지를 새로운 뇌에 전달했을 때, 아마도 새로운 뇌는 신뢰질이 평소 하듯이 반응했을 것이다. 즉 낡은 뇌에게 속도를 늦추라고 했을 것이다. “조심해!”라고 말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줄다리기에서 패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낡은 뇌가 있다. 하지만 고반응성인 사람의 편도체가 평범한 사람보다 새로운 것에 더 민감하듯이, 외향적인 사람들은 내향적인 사람에 비해 보상을 추구하는 낡은 뇌의 욕망에 좀 더 쉽게 굴복하는 듯하다. 사실, 일부 과학자는 보상 민감성이 외향성의 흥미로운 특성일 뿐 아니라 바로 그것이 외향적인 사람을 외향적인 사람으로

로 만드는 요인이라는 발상을 탐구해보기 시작했다. 달리 말하자면 외향성은 최고라는 지위에서부터 성적 쾌락과 금전에 이르기까지, 보상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외향적인 이들은 내향적인 사람보다 돈과 정치와 쾌락 면에서 더 야망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관점에 따르면, 이들의 사고성조차 이런 보상 민감도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외향적인 이들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그것이 본질적으로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이런 보상 추구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을까? 그 열쇠는 긍정적 감정인 듯 보인다. 외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보다 즐거움과 흥분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감정에 관해, 심리학자 다니얼 네틀(Daniel Nettle)은 이렇게 설명한다.

이런 감정은 “귀중한 자원을 추구하거나 얻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다. 그 자원에 다가설수록 흥분은 커진다. 자원을 획득하고 나면 기쁨이 따라온다.” 다시 말해 외향적인 사람은 소위 ‘열광의 도가니’에, 즉 힘이 넘치고 열의에 찬 느낌에 빠질 때가 빈번하다. 이 감각은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지만, 모두 똑같이 좋아하지도 않고 모두에게 똑같이 자주 일어나지도 않는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목표를 추구하고 달성하는 일에 좀 더 열광하는 듯싶다.

이런 열광의 기반에는 뇌의 여러 부분들이 활발하게 상호 작용하는 현상이 있는 듯하다. 이 부분들은 보통 ‘보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안와 전두 피질, 중격의지핵, 편도체 등이 관여한다. 보상 시스템의 기능은 우리가 탐스러운 것을 얻을 생각으로 흥분하게 만드는 일이다. fMRI 실험을 보면 보상 시스템은 청량음료가 혀에 닿을 것이라는 기대, 돈, 매력적인 사람의 사진 등 온갖 잠재적인 즐거움의 원천 때문에 활성화된다.

보상 체계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세포들은 부분적으로 도파민(뇌세포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화학물질)이라고 부르는 신경전달물질을 이용한다. 도파민은 쾌락이 예상될 때 거기에 반응하여 분비되는 ‘보상화학물질’이다. 두뇌가 도파민에 더 잘 반응할수록 혹은 도파민을 더 많이 분비할 수 있을수록, 섹스나 초콜릿이나 돈이나 지위와 같은 보상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기 쉽다고 몇몇 과학자들은 믿고 있다. 중간뇌 도파민 활동을 자극하면, 쥐들은 굶어 쓰러질 때까지 빈 우리 안을 흥분하여 뛰어다닌다. 코카인과 헤로인은 인간의 도파민 분비 신경세포를 자극하여 사람들을 도취 상태에 빠지게 한다.

외향적인 사람들의 도파민 경로는 내향적인 사람들의 경로보다 더 활발한 듯싶다. 외향성과 도파민과 두뇌의 보상 시스템 사이의 정확한 관계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지만, 초기의 발견들은 흥미진진했다. 한 실험에서 코넬 대학의 신경생물학자인 리처드 데퓨Richard Depue는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들 그룹 각각에, 도파민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암페타민을 주면서 외향적인 사람들이 더 강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도박에서 이긴 외향적인 사람들이 같은 상태의 내향적인 사람보다 뇌의 보상 민감도와 관련한 영역에서 움직임이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보다, 보상 시스템의 핵심 요소인 안와 전두내측 피질medial orbitofrontal cortex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심리학자 네틀에 따르면 내향적인 사람은 “보상 시스템의 반응이 약하고 따라서 [보상의] 단서를 보더라도 자기 길에서 쉽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들은 “여느 누구와 마찬가지로 시시때때로 섹스와 파티와 지위에 끌리지만, 이들이 받는 자극은 비교적 적으며 따라서 이들은 그걸 얻으려고 무리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내향

적인 사람은 그리 쉽게 열광하지 않는다.

과한 긍정적 감정은 경고 신호를 무시한다

어떤 면에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행운아다. ‘열광’은 기분 좋은 샴페인 같은 느낌이 있다. 열심히 놀고 일할 연료가 된다. 위험을 무릅쓸 용기도 준다. 대중 강연처럼 너무 어려워 보이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한다. 누군가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해 강연을 준비하느라 열심히 한다고 해보자. 그가 말하고픈 메시지를 전달하고 강연을 마치자, 청중이 일어서서 한참 동안 진지하게 박수를 친다. 어떤 강사는 강연장에서 나가면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하고 싶은 말을 전달했으니 기쁘지만 끝나고 나니 후련하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군.” 열광에 좀 더 민감한 다른 강사는 이렇게 느낄지 모른다.

“끝내주는군! 저 박수소리 들었어? 내가 인생을 바꾸는 얘기를 들려줬을 때 사람들 표정 봤어? 좋았어!”

하지만 열광에는 상당한 단점도 있다.

“누구나 긍정적인 감정을 강조하는 게 좋을 거라고 가정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죠.”

심리학 교수 리처드 하워드Richard Howard가, 축구에서 승리했을 때 폭력과 재산피해가 일어나는 사례를 지적하며 내게 말했다.

“반사회적이고 자기파괴적인 행동의 상당수가 긍정적인 감정이 강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이지요.”

열광의 또 다른 단점은 과도한 위험과 연관된다. 열광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경고 신호를 무시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테드 터가 (아마도 극도로 외향적인 듯한데) AOL-타임워너의 거래를 첫 성

관계에 비유했을 때, 새로운 여자 친구와 하룻밤 보낼 생각에 너무 들떠서 결과가 어찌 될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한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그도 그런 열광의 도가니에 빠져 있었다는 점을 이야기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위험에 눈을 감아버리는 태도는 왜 외향적인 사람들이 내향적인 사람들보다 운전 중에 사망하고, 사고나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위험한 섹스를 벌이고, 위험한 스포츠를 즐기고, 바람을 피우고, 재혼하는 확률이 높은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들이 내향적인 사람보다 왜 더 자신을 과신하는지 설명하는 데도 유용하다. 여기서 과신이란 능력에 어울리지 않게 자신감이 커진 것을 말한다. 열광은 케네디 가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케네디 가의 저주이기도 하다.

외향성과 내향성, 조직 내에서 역할 분담하기

외향성에 관한 이런 이론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절대적이지 않다. 외향적인 사람이 모두 보상을 갈구한다거나 내향적인 사람이 모두 위험 앞에서 속도를 늦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도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이 개인의 생활과 조직에서 하는 역할들을 재고해봐야 한다는 점은 말할 수 있다. 이 이론은 그룹으로서 의사결정을 할 때 외향적인 사람들이 내향적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문제가 눈앞에 있을 때는 더더욱. 계산도 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고 위험을 보지 못했다는 점이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한 2008년 주식시장 붕괴 이후에, 월스트리트에 남자는 (혹은 테스토스테론은) 줄이고 여자는 늘리는 편이 좋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유행했다. 하지만 키를 잡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향적인 사람이,

도파민이 훨씬 적은 사람이 좀 더 많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도 생각해봐야 할지 모른다.

몇몇 연구를 보면 이 질문의 답을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다. 켈로그 경영대학원 교수 커밀리아 쿠넨(Camelia Kuhnén)은 외향성 중에서도 특히 스틸을 좋아하는 성향과 연관된 도파민 조절 유전자(DRD4)의 변형이 재정적인 문제에 위협을 감수하는 성향의 강력한 예측 변수라는 점을 발견했다. 반면, 내향성 및 섬세함과 관련된 세로토닌 조절 유전자의 변형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재정적 위험을 감수할 확률이 28퍼센트 낮다. 이들은 정교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도박을 할 때도 다른 이들보다 뛰어났다. (이 변형이 있는 사람들은 이길 확률이 낮으면 위협을 피하는 성향을 보이고, 이길 확률이 높으면 좀 더 위험을 감수했다.) 투자은행에서 일하는 투자자 64명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는, 가장 성과가 좋은 투자자들이 감정적으로 안정된 내향적인 사람인 경향이 드러났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들보다 만족을 지연하는 데도 더 뛰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높은 SAT 점수, 소득, 신체용적지수 BMI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문제와 연관된 중차대한 자질이다. 한 연구에서 과학자들이 피험자들에게 즉각 작은 보상(아마존 상품권)을 받거나 2-4주 후에 좀 더 큰 상품권을 받는 것 중 선택하게 한 적이 있다. 객관적으로 보면 당장은 아니어도 가까운 미래에 더 큰 보상을 받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난 지금 받을래”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때, 이들의 보상 체계가 활동 중이었다는 점이 뇌 스캔 결과에 드러났다. 2주 후에 더 큰 보상을 받기 위해 버틴 사람들은 전전두 피질이 더 활성화되었다. 새로운 뇌의 일부인 이 영역은 부적절한 이메일을 보내거나 초콜릿 케이크를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우리를 설득한다. 한 유사 연구에서는 전자들이 외

외향성 중에서도 특히 스릴을 좋아하는 성향과 연관된
도파민 조절 유전자(DRD4)의 변형이 재정적인 문제에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의
강력한 예측 변수라는 점을 발견했다. 반면, 내향성 및 섬세함과 관련된
세로토닌 조절 유전자의 변형이 있는 사람들은
재정적 위험을 감수할 확률이 28% 낮다.

향적이고 후자들이 내향적인 경향을 보였다.

월스트리트 법률회사에서 신입변호사로 일하던 1990년대, 나는 한 은행을 대변하는 변호사들 팀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은행은 다른 대출기관들에서 낸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의 포트폴리오를 사들일까 말까 고민 중이었다. 내 임무는 실사였다. 그 대출이 적절한 서류 작업을 거쳐서 진행되었는지 문서를 확인하는 일이었다. 대출자들은 자기들이 갚아야 할 이자율을 제대로 통보받았는가? 이자율이 점점 올라간다는 점도?

서류는 알고 보니 부정행위가 한 가득이었다. 내가 은행 입장이었다면, 이것을 보고 정말로 초조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법률 팀이 컨퍼런스 회의에서 위험에 조심하라는 말을 계속 하면서 내용을 요약했을 때, 은행가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는 듯했다. 그들은 대출을 낮은 금액에 사들일 때 얻을 잠재적인 이익을 생각하며, 그대로 거래를 진행하고 싶어했다. 하지만 2008년에 찾아온 경기 대침체 때 수많은 은행이 실패하게 되었던 것도 바로 이렇게 위험과 보상을 잘못 계산한 탓이었다.

대출 포트폴리오를 검토하던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나는 월스트리트에서 회자되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유망한 사업 건을 놓고 투자은행들끼리 서로 손에 넣겠다고 경쟁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주요

은행들은 제각기 최고의 직원 부대를 파견하여 의뢰인을 설득하게 앉혔다.

각 팀은 스프레드시트, ‘피치북’(투자은행들이 쓰는 마케팅 자료),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등 평소에 쓰던 도구들을 배치했다. 하지만 승리한 팀은 여기에 자신만의 연출을 가미했다. 이들은 FUD, 즉 Fear(두려움), Uncertainty(불안), Doubt(의심)의 머릿글자를 새긴 야구모자와 티셔츠를 맞춰 입고 회의장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때 FUD에는 강렬한 빨강 X로 사선이 그어져 있었다. FUD는 성 삼위일체가 아니라 불경 삼위일체였으므로, FUD 격파자들로 호소한 그 팀이 승리했다. (FUD는 주로 고객에게 경쟁사 제품에 대한 두려움, 불안, 의심을 심어주는 전략을 말할 때 쓴다. - 옮김이)

“FUD(그리고 그것을 잘 느끼는 사람)를 무시하는 태도가 대침체를 불러오는 데 일조했다”고 보이킨 커리 Boykin Curry는 말한다. 그는 이글 캐피탈이라는 투자회사의 대표로서 2008년 붕괴를 코앞에서 목격한 바 있다. 공격적으로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의 손에 힘이 너무 집중된 것이다. 그가 「뉴스위크」에 한 얘기를 들어보자.

“20년간, 거의 모든 금융기관의 DNA가 위험할 정도로 변했다. 자리에 앉은 누군가가 레버리지와 위험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할 때마다 그 사람이 ‘맞다’는 것으로 판명 났다. 이들은 더 대담해졌고, 승진도 했으며, 자본을 더 많이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주저하면서,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영자는 ‘틀렸다’고 판명되었다. 조심스러운 유형은 점점 위협을 느꼈고, 승진 기회를 박탈당했다. 자본 통제력도 잃었다. 이런 일이 거의 모든 금융 단체에서 날마다 벌어졌고, 결국 특정 부류의 사람이 상황을 통제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커리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생으로, 그의 아내이자 팜비치 출신

디자이너인 셸러리 켈블(Celerie Kemble)과 함께 뉴욕 정계와 사교계의 유명인사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그는 자칭 ‘과감하게 지르는’ 군중이라고 표현한 무리의 정식 멤버로서, 내향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옹호할 인물로 비칠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한 가지 그가 수줍어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전 세계적인 금융 붕괴를 일으킨 장본인이 강압적이고 외향적인 사람들이라는 주장이다.

“특정 성격의 사람들이 자본과 기관과 권력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그리고 좀 더 조심스럽고 내향적이고 통계에 근거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임을 잃고 옆으로 밀려난다.”

라이스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로서 엔론 사의 연구책임자로 일한 적이 있는 빈센트 카민스키(Vincent Kaminski)는 과도하게 위험에 뛰어든 사람들이 조심스럽고 내향적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너무 높은 지위를 누리는 기업 문화에 대해 『위싱턴 포스트』에 언급했다. (엔론은 2001년에 무모한 경영으로 파산 신청을 하여 유명해진 기업이다.) 말씨가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카민스키는 엔론 스캔들의 몇몇 영웅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중역들에게, 너무 위험해서 생존까지 위협당할 지경의 거래에 뛰어들었다고 경보음을 울리려고 반복해서 노력했다. 최고위 간부들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자, 그는 그 위험한 거래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팀에게 그 일에서 손을 떼라고 말했다. 엔론 사는 회사 전반에 관련된 거래를 검토하는 그의 권한을 박탈했다. 『바보들의 공모 Conspiracy of Fools』라는 책에 따르면 엔론 사의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빈센트, 당신이 거래를 도와주지 않고 있다는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찰처럼 구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빈센트, 우린 경찰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가 필요했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금융공

황의 위협 때문에 2007년에 월스트리트의 가장 큰 은행 중 몇 군데의 생존력이 바닥을 칠 때, 카민스키는 또다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다. “엔론의 악령이 모두 퇴치되지는 않았다고만 해둡시다.” 같은 해 11월에 그가 『워싱턴 포스트』에 한 말이다. 그가 보기에 문제는 은행이 어떤 위협에 뛰어들려고 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뿐이 아니었다. 문제는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것을 무시한다는 점이었다. 부분적으로는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

“에너지 투자가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서 이렇게 말한 적이 많죠. ‘이러저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붕괴할 것입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내게 고함을 치기 시작하면서 나더러 멍청이라고, 그런 상황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한편에는 회사를 위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며 슈퍼스타로 취급받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내향적인 ‘얼간이’가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니 누가 이기겠습니까?”(끝) 

- 이 글은 『콰이어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수전 케인(Susan Cain)** | 어린 시절 수줍음 많은 책벌레 소녀였던 수전 케인은, 기업과 대학에서 협상기법을 가르치는 변호사가 되었지만 자신의 성격을 직업에 걸림돌로 여겼다. 그녀는 궁금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왜 항상 죄책감을 느끼며 원래 성격을 감추고 살아야 하는 걸까?’ 어느 날, 자기 성격 그대로 상대방과의 협상에 성공한 후, 자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내향성이 얼마나 위대한 기질인지 증명해보기로 했다. 은근한 끈기로 시작된 저술은 그녀의 20~30대를 거치며 완벽한 책으로 탄생하였고, 그녀의 2012년 TED 강연은 1500여 청중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산업사회의 과다경쟁이 낳은 ‘외향성 이상주의’의 부작용과 그 해법을 저자 특유의 통찰력으로 제시한 이 책 『콰이어트』는 출간 즉시 뉴욕타임스 커버스토리로 다루어지는 등 언론을 비롯한 미국사회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올해 상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수전 케인은 현재 수많은 기업 및 단체에서 내향성에 관한 강연 요청을 받으며, 〈뉴욕 타임스〉와 〈사이콜로지 투데이PsychologyToday.com〉등에 관련 글을 기고하고 있다. 프린스턴과 하버드 법대 우등 졸업생인 저자는 현재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허드슨 리버 벨리에서 살고 있다.

역자 | **김우열** | 번역가 김우열은 자기계발서와 평전, 철학 등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있는 영어 전문 번역가이다. 그의 이력은 독특하다. 연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후, 평이하게 취직하여 팬택과 모토로라에서 근무하다가 뒤 게 번역을 선택하게 되었다. 공학을 전공한 그의 특성은 문체에서 강점으로 드러나는데, 특유의 건조하고 분석적인 스타일은 자기계발서와 철학 분야의 책들을 군더더기 없이 담백하게 만들어준다. 옮긴 책으로는 『시크릿』을 비롯해 『몰입의 재발견』, 『기본 좋게 살아라』, 『평전 마키아벨리』, 『위대한 발견의 숨겨진 역사』, 『시크릿 다이어리』, 『콰이어트』, 『물타의 매』, 『구글드』를 비롯해 다수가 있고, 지은 책으로는 『채식의 유혹』, 『나도 번역 한번 해볼까』가 있다.

추천도서 마음에 닿은 책 Good Book

콰이어트

시끄러운 세상에서 조용히 세상을 움직이는 힘

저자 수전 케인 | 역자 김우열 | 출판사 알에이치코리아 | 정가 14,000원



시끄러운 세상에서 조용히 세상을 움직이는 힘!

우리 안의 외향성과 내향성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제시하는 『콰이어트』. 이 책은 엘리너 루즈벨트(영부인), 앨 고어, 워런 버핏, 간디, 로자 파크스 같이 증대한 발자취를 남긴 내향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내향성이 사회와 만날 때 어떤 증대한 효과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보여준다. 저자는 인류학, 심리학, 뇌과학, 유전학 등에서 내향성에 관련된 모든 연구와 실험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을 비롯한 현대를 살아가는 내향적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용들이 과연 무엇인지, 이들의 심리적 사고와 행동 패턴이 가진 긍정적 가치들을 조직이나 사회 내에서 어떻게 계발시키고 이끌어낼 것인지에 관해 심도 있게 다루었다.